



## 국립공원 운동의 성숙기

이 경 식

(국립공원협회회장)

우리 국립공원협회가 탄생된지 올해로서 25년, 사람의 나이론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꿈을 펼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협회가 걸어온 4반세기도 순탄치 않은 않아, 그동안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학술조사, 연구를 주축으로 삼아 몇해전까지만 해도 동호인 단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립공원 애호운동이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잡혀 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회원은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인류의 공동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도 환경파괴의 폐해에 관한 우려와 함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사회 개발전략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요구에 맞게 자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만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여가생활이나 쾌적한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는 계속 커져 갈 전망으로, 많은 사람이 이를 골고루 향유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연환경에 어느 정도 인간의 손길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자연이라는 한가지 대상을 두고 “보존과 이용”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나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호인 모임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과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강산을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협회 발전을 위해 보다 알찬 성원과 힘의 발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